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불합리한
용도지역 체계 개선(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
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)에 관한 청원

제 안 설 명

문성호 의원 (국민의힘, 서대문2)

-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과 이상욱·임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입니다.
- 본 청원은 서대문구 연희로11길 일대 주민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용도지역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, 침해된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제출되었습니다.
- 해당 지역은 과거 건축법에 따른 고실지로 분류되어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, 실제로는 평지에 위치하며 대규모 상권 및 카페거리와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. 오히려 지대가 높은 인근 구릉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용도지역 역전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은 수십 년 간 재산권과 주거권에 있어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.
- 이에 본 청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구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.

- 먼저 현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현실에 부합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. 이는 건축물의 층수 제한과 용도규제로 인해 침해된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고,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.
- 또한 연희로11길 일대는 이미 자생적으로 골목상권이 형성되어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이들이 정당한 영업권을 보장받고 지역 상권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.
- 시대의 변화와 지형적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도시계획은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뿐입니다.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를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과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은 서울시 행정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들의 간곡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,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